

‘만화도시’ 순천 기대하세요

장천동에 ‘웹툰 캠퍼스’ 조성...작업실·체험관 등 꾸며
캐릭터 개발·만화 플랫폼 기업 유치 등 웹툰산업 육성

프랑스 앙굴렘은 인구 10만여명에 불과한 소도시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400km밖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를 찾아 가는 여행객·관광객·매니아층 관람객들만 수십만명이 넘는다. 이른바 ‘앙굴렘 국제만화축제’(Angoulême Festival International de la Bande Dessinée)다.

순천이 한국의 ‘앙굴렘’을 표방하고 나섰다. 국내 만화산업의 중심지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대표 만화산업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게 순천시 의지다. 순천시가 조성하는 ‘웹툰 캠퍼스’는 영상시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화산업을 집중 육성, ‘만화도시 순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번째 상징이다.



웹툰 캠퍼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지역 웹툰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첫 발을 뒀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도시는 전국에서 순천이 유일하다.

순천시는 국비 4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33억5000만원을 들여 순천시 장천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550㎡) 규모의 건물을 사들였다.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 5월이면 국내 만화 창작·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웹툰 캠퍼스’가 조성된다.

순천시는 ‘웹툰 캠퍼스’를 통해 국내 만화 분야의 정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웹툰 캠퍼스는 웹툰 체험관, 만화·웹툰 도서 전시실, 웹툰 작가들의 작업실, 웹툰 기업 입주 공간, 세미나실, 만화교육실, 창작지원실 등을 갖추게 된다.

만화산업 육성만 노린 게 아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지역 젊은 청년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아 그들의 꿈과 바람, 욕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순천대의 경우 4년제 국립대로는 전국 최초로 만화애니메이션 학과를 개설, 신진 작가 양성에 공을 들여왔다.

‘야심작 정열맨’, ‘열혈초등학교’ 등으로 알려진 귀귀, ‘갯 오브 하이스쿨’의 박용제, ‘충장’, ‘미스터블루’의 김민준, ‘마왕의 성’의 서강용, ‘월랑’의 홍예슬 등이 순천대 출신이다.

순천시는 또 전국 웹툰 최강자전, 순천만정원을 활용한 정월 웹툰

전 등 다양한 공모전을 열고 만화 캠프, 만화 카페를 운영하는 등 웹툰 문화 확산에도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웹툰 캐릭터 테마거리, 작가들의 캐릭터 샵을 조성하고 순천 대표 축제와 연계한 만화·웹툰존 운영, 코스프레 행사 등으로 도심 곳곳에 웹툰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순천시는 여기에 한·중·일 만화 포럼을 열고 만화 플랫폼 기업을 유치, 순천 웹툰 캠퍼스가 국내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만화도시’로 거듭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웹툰의 창작기반을 조성, 지역 웹툰산업 성장 뿐 아니라 글로벌화를 위한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을 웹툰을 기반으로 한 젊은 창의도시 순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외국인이 본 순천만은? ...벨기에 작가가 1년간 담은 사진전

배병우 창작레지던시 9일부터

세바스티안 슈티제 초대전

외국인이 본 순천만은 어떤 느낌일까. 순천에 1년간 머물며 순천만의 자연을 카메라에 담은 외국인 작가의 사진전이 열린다.

‘순천 배병우 창작레지던시’는 오는 9일부터 벨기에 출신 사진작가 ‘세바스티안 슈티제 사진전’을 연다.

내년 1월 말까지 열리는 전시는 ‘순천 배병우 창작레지던시’가 마련한 첫번째 아티스트 초대전으로, 작가가 1년간 순천에 머물면서 담아낸 순천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작가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순천만의 자연과 시간의 변화 과정을 필름 카메라에 담아냈다. 작품 곳곳에서는 갈대와 갯벌, 빛의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을 엿볼 수 있다.

필름 카메라는 특별한 장치 없이 오로



‘Traces #1’.

〈순천 배병우 창작레지던시 제공〉

지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을 필름에 맺히게 하는 방식으로 상을 담는다. 부드러운 초점과 광각 저하로 사진 모서리 부분이 어둡게 나오는 비네팅 현상이 매력적이다.

작가는 “순천만의 개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남긴 흔적과 진흙 위 자국들이 서로

얹히며 그려낸 섬세한 문양은 몇 시간도 채 가지 않는다”며 “마치 수도승이 기도문을 적은 뒤 이를 씻어내고 다시 글을 적어 내려가는 끝없는 과정과도 같다”고 썼다.

벨기에 출신으로 콩고에서 자라 겐트 왕립 미술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올해 낙안읍성 방문객 100만명 넘어서

올 해 순천 낙안읍성을 찾은 방문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인천에서 낙안읍성을 찾은 장정심(여·56)씨가 100만번째 관람객으로 입장에 꽃다발과 초가 민박 이용권, 서각 명인의 작품을 선물로 받았다.

낙안읍성은 초가집 마당과 돌담 사이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함께 흐르는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으로, 사적 302호다.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한양성을 본따 만든 국내 유일한 읍성으로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 보존된 마을에 98세대 228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관람객은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거닐며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거나 길쌈, 풀무질, 그네타기, 천연염색 같은 체험을 즐기고 초가 민박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방문객 눈높이에 맞춰 낙안읍성에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재현, 주말상설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향동 ‘문화의 거리’ 은행나무 가로수길 온전하게 감상하세요

전선 지중화 작업 마무리

순천 향동 ‘문화의 거리’ <조감도>은행나무 가로수길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거미줄처럼 얽혀 가로수길 전망을 가렸던 전선과 전신주들이 지중화 작업을 거쳐 사라지면서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중앙로부터 공마당길 460m 구간에 대한 전선주 지중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가로수길 사이로 펼쳐진 말끔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일대는 순천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비롯, 다양한 문화행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선주와 전선으로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순천시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 지난해 4월부터 한전·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지중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예코지오마를 조성하고 장안 창작마당 등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 인도를 정비했다.



또 문화의 거리에 난봉산 참샘 계곡 맑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을 조성, 음악을 흐르게 해 걷기 좋은 길로 만들어 지역의 특색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문화의 거리 은행나무 가로수 길이 전국 대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볼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	---	---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가인 기념품!!

보조배터리	손톱 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	--------	-------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천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미납 및 예외금원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월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크	신규가입 고객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첨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